
Picasso and Korean War: 〈La Guerre〉 and 〈La Paix〉

Young Mok Chung / Professor,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Massacre in Korea〉, Picasso painted 〈War〉 and 〈Peace〉 during the critical time of the Korean War. Two huge panel of paintings were to decorate the old Romanesque chapel of the castle in Vallauris. His concept for the decoration of the chapel had focu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destructive powers of war and the idyllic life under peace. Between April 1952, the date of his first sketch, and September, Picasso had some 280 drawings and studies for the two paintings. He started with the war panel, which features the ruinous foray of a demonic equipage, a rickety chariot pulled by three skeletal horses. The charioteer, the personification of war, is a nude hybrid with a male human body. Slung over his shoulder is a basket filled with human skulls, and his left hand is sowing insects and vermin.

In the early 1950s, however, anti-American feelings ran high in Europe, fanned by the Communists' accusation that American forces used bacteriological weapons in the Korean War. Picasso accused the Americans of using bacteriological weapons and denounced them as "the most dangerous enemy of world peace and human justice." The 〈War〉 was indeed to create a powerful and comprehensible condemnation not only of war but also of bacteriological warfare. The treatment of this theme was politically explosive at the time, and there could be no doubt that Picasso's condemnation targeted America.

The panel 〈Peace〉, by contrast, is more elusive. Its whimsical elements allude to the world of fairy

tales. Unlike the scene in 〈Joy of Life〉 of 1946, the 〈Peace〉 has avoided the mythological realm. It avoids the utopian optimism of traditional golden age of the Western iconography. Some scholars see the panel in terms of a Communist utopia, but I don't think so. I think the panel makes us imagine peace and happiness and encourages us to believe in innocence rather than experience. Picasso depicted an image of what the peace warrior is defending: a vision of paradise.

In February 1954, the two panels were installed in the chapel. After the installation, the chapel was closed for more than five years. It is not known what delayed the opening of the chapel to the public for so long. By the time the opening was at last planned to take place in July 1958, the government had changed. De Gaulle had come to power and the opening of the chapel was finally inaugurated in the September 1959.

피카소와 한국전쟁: <전쟁>과 <평화>를 중심으로

정영목 / 서울대학교 교수

1. 피카소: 1946-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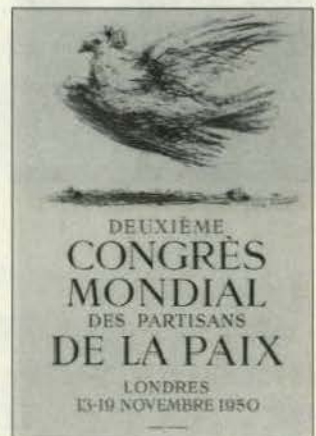
피카소는 1946년 여름부터 질로(Francoise Gilot)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고,¹⁾ 그들이 헤어진 1954년까지 피카소는 아마도 그의 생애에 가족, 남편, 아버지로서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그 정점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울분과 편린(片鱗)의 정이 그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그에게 직접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구의 어디에서건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피카소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유럽에서 피카소의 세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피카소 개인적으로는 <게르니카>로 집약되는 스페인 내전을 지켜보았다. 이렇듯, 전쟁이라면 신물이 날 즈음에 또다시 한국전쟁이 터졌으니 전쟁에 대한 그의 증오와 적개심은 행복의 정점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증폭되었을 것이다.

피카소와 질로가 가족으로서의 행복의 정점을 누렸던 장소는 프랑스 남부 칸느 옆의 조그마한 도에 산업의 마을인, 발로리(Vallauris)였다. 1948년 여름 그 곳으로 이주한 후 피카소는 주로 도예작업에 전념했다. 한편, 피카소는 그의 프랑스 공산당 활동과 함께 1947년부터 소위 '공산주의자들 식의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렸다. 1949년 4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세계평화회의(World Peace Congress)의 포스터를 위한 비둘기를 제작하는가 하면,²⁾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1950년 11월 영국의 셰필드(Sheffield)에서 열린 제2차 세계평화회의

포스터를 위한 비둘기(도, 1)도 제작했다. 피카소의 이러한 비둘기들은 자유진영 쪽에서 평화를 가장한 소련의 책략쯤으로 그의 미가 불순한 것으로 격하되기도 했다. 피카소는 이 두 대회에 모두 참석했고 셰필드에서는 그의 유명한 "나는 죽음에 대항하여 생(生)을 옹호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편에 서있다"는 연설을 남겼다.³⁾ 이러한 평화활동의 공적으로 피카소는 1950년 11월 22일 '레닌 평화상(Lenin Peace Prize)'을 받았다.⁴⁾

피카소는 중세 시대부터의 도예 전통을 이어온 자그마한 마을인 발로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애정의 첫 번째 징표로 피카소는 마을 중심부 시장의 광장에 그의 1943년 조각 작품인 <양과 사람>(도, 2)을 기증했다. 고대 그리스의 <송아지를 맨 사람> 혹은 초기 기독교 시기의 <선한 목자>상을 떠올리게 하는 발로리의



도판 1) 피카소, <평화의 비둘기>, 1950

- 1) 첫 아이 클로드(Claude)는 1947년 5월, 둘째 아이 팔로마(Paloma)는 1949년 4월에 태어났다. 둘째 아이의 이름, '팔로마'는 스페인어로 '비둘기'를 의미한다.
- 2) 이 회의의 정확한 명칭은 'Congrès Mondial des Partisans de la Paix'이고, 피카소가 그린 '평화의 비둘기'는 이 회의의 포스터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 3) Gertje R. Utley, *Picasso: The Communist Year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 114에서 재인용.
- 4) Ibid. 정확한 상의 명칭은 'the Grand Prix International de la Paix'이다. 유류리는 이 상을 '스탈린 평화상(Stalin Peace Prize)'으로 부른다고 했다. 피카소는 이 상의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판 2) 피카소, 〈양과 사람〉, 1943

이 조각에서 피카소는 이상적인 고전의 전통과 지정학적 관념으로서의 지중해식 평화를 꿈꾸고 있다. 한편, 1950년 8월, 기증 조각의 제막식장에서 피카소는 발로리 시의회로부터 광장 옆 중세 시대의 성채에 딸린 자그마한 로마네스크 성당의 내부를 장식해달라는 공식적인 부탁을

받았다.⁵⁾

1951년 6월 피카소는 질로와 함께 마티스(Matisse)가 내부를 디자인한 방스(Vence)의 로사리오(Rosaire) 성당의 낙성식에 참가한다. 아마도, 당대 미술의 최고 경쟁자로서 피카소는 마티스의 작품이 공공을 위하여 그렇게 보여 진다는 것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 것 같다. 당시, 주로 성당을 장식하는 이러한 공공미술의 작업을 마티스뿐만 아니라 레제(Leger), 루오(Rouault), 브라크(Braque), 샤갈(Chagall) 등도 하고 있었으니,⁶⁾ 피카소도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마땅한 장소로서 발로리시의 제안을 즐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1952년은 피카소가 〈전쟁〉과 〈평화〉를 구상하고 완성한 해로 그의 후기 업적을 대표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프랑스 공산당 내의 피카소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념의 동반자였던 시인 엘뤼아르(Paul Eluard)가



도판 3) 피카소, 〈스탈린의 초상 (도판 4) 스탈린의 젊은 시절의 화)〉, 1953



사진, 1918

죽었다. 1953년 3월 5일에는 스탈린이 죽었다. 아라공(Louis Aragon)의 부탁으로 피카소는 『프랑스인의 편지(Les Lettres francaises)』에 실릴 스탈린의 초상화(도. 3)를 그렸다. 그러나 스탈린의 젊었을 때의 모습(도. 4)을 조금은 밝고 해학적으로 그린 초상화가 발표되자, 나이가 지긋한 점잖은 모습의 스탈린을 원했던 프랑스 공산당의 간부들은 대경실색을 하고 노골적으로 피카소를 비판했다. 이후, 피카소는 공산당과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해 5월부터 7월 5일까지 로마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피카소의 회고전이 열렸고, 〈전쟁〉과 〈평화〉가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로마의 전시를 더욱 확대한 회고전이 밀라노에서 열렸다. 〈게르니카〉와 〈한국에서의 학살〉이 함께 전시된 밀라노의 회고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2. 〈전쟁〉과 〈평화〉

1951년 5월 살롱전(Salon de Mai)에 〈한국에서의 학살〉을 발표한 후에도 한국전쟁에 대한 피카소의 태도와 관심은 여전했다.⁷⁾ 프랑스 공산당과 관련한 반전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미학적 태도 역시 〈한국에서의 학살〉과 다를 바 없었다.

5) Utley, pp. 152-153. 윌러리는 발로리시의 시장을 비롯한 행정 구성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피카소와 그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본다.

6) Sylvie Forestier, *Pablo Picasso, La Guerre et la Paix*, Paris: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95, p. 13.

7) 이 작품에 관한 양 이데올로기 진영의 정치적 관점이나 일반인들의 미학적 관심은 냉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표현하는 피카소의 미학적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정영목, “피카소와 한국전쟁, 〈韓國에서의 虐殺〉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8집, 1996, pp. 244-248을 참조할 것.



도판 5) 피카소, <전쟁과 평화>, 1951



도판 6) 피카소, <전쟁>, 1951

“만약에 누가 전쟁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활과 화살을 그리면 아마 더욱 고상하고 문학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 미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쟁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나는 기관총을 사용할 것”이라는 피카소의 태도는 그대로 <한국에서의 학살>에 적용되었고,⁸⁾ 1951년 10월에 그린 두개의 드로잉, <전쟁과 평화>(도. 5)와 <전쟁>(도. 6)에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두 드로잉은 모두 현대전을 암시하는 탱크를 직설적으로 과물처럼 묘사했으므로 추상을 지지하던 당시의 미학적 경향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사도는 ‘활과 화살’을 그린 것과 같은 효과의 미학적 태도를 보인다. 칼과 방패를 들고 탱크와 맞서 싸우는 클래식적 전사는 다분히 ‘고상하고 문학적’이다. 앞으로 논의할 1952년의 <전쟁>의 전주곡과도 같은 이 드로잉은 <한국에서의 학살>에서 보여준 직설법이 실패하자, 다시 고전적 상징을 들고 나오는 피카소의 변화한 미학적 태도를 말해준다. 그러나 1952년의 <전쟁>에서 피카소는 ‘탱크’ 대신 ‘세균’을 들고 나온다.

<전쟁>과 <평화>로 장식될 발로리의 성당(도. 7)을 피카소는 ‘평화의 신전(Temple of Peace)’이라 명명했다. 피카소는 이를 위해 매우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다.⁹⁾ 우선, 습기가 많은 성당 내부의 환기시설을 개선했고, 477.8cm x 1011.6cm에 달하는 <전쟁>과 <평화>의 두 패널을 그리기 위한 대형 공간의 작업실이 필요했다. 다행히, 마을의 옛 향수공장 이었던 ‘푸르나(Le Fournas)’의 공간을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성당의 천정이 원통형 공룡(barrel vault)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부리기에 용이한 화이버 보드(fiberboard)를

패널로 사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카소는 이 작업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의 푸르나 작업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증거이다. 1952년 9



도판 7) 피카소, <평화의 신전>, 1954, 발로리스

월 18일 피카소와 점심을 함께한 콕토(Jean Cocteau)에 의하면 질로까지도 푸르나 작업실을 들어갈 수 없었다.¹⁰⁾

<한국에서의 학살>과는 다르게, 피카소는 ‘평화의 신전’ 작업을 위해 1952년 4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280여장의 습작 드로잉을 제작했다. 또한, <게르니카>와는 달리 이 습작들은 대부분 최종 작업에 적용될 각 부분별의 모티브였지, 작품 전체의 구성을 보여주는 습작은 없었다. 필자는 이들 습작과 최종 두 작품에 나타난 도상학적 해석을 본 논문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다. 전쟁과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둔 이 한 쌍의 작품 <전쟁>과 <평화>는 선과 악의 도덕적 메시지가 뚜렷하고, 상징과 이미지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그림이다. 다만, 미국의 세균전 논란으로 휴전협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한국전쟁의 막바지 시기였던 1952년, 피카소는 그러한 논란을 사실로서 입증이나 하는 듯 그의 <전쟁>에 세균의 이미지를 등장시키면서 <게르니카> 이후 다시 한번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8) Jerome Seckler, “Conversations with Picasso,” *New Masses Magazine*, New York, March 1945. Dore Ashton, *Picasso on Art: A Selection of Views*, New York: Penguin Books, 1977, p. 137에서 재인용.

9) 질로에 의하면 피카소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었고, 그의 70세 생일날인 1951년 10월 발로리의 기념 잔치에서 성당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유폴리, p. 155.

10) Ibid.



도판 8) 피카소, <전쟁>, 1952, 477X1011cm, 발로리스, 평화의 사원



도판 9) 피카소, <전쟁과 평화>를 위한 습작 드로잉, 1952, 4,28

1) <전쟁>

피카소의 <전쟁>(도판, 8)에서 전쟁을 상징하는 악마의 주역은 오른 손으로 피 묻은 칼을 내려 꽂으며, 왼 손으로는 세균 혹은 세균에 감염된 곤충을 바가지로 뿌리고 있다. 그에 맞서 싸우는 젊은 평화의 전사는 오른 손에 펜대 같은 창을 들고, 질로를 닮은 실루엣 위에 비둘기가 그려진 평화의 방패를 들고 있다. 여기서 논란을 있게 한 시비의 고투리는 세균과 비둘기이다. 한국전쟁 중 미국이 세균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공식적인 비난과 함께 전쟁의 도덕성에 먹칠을 당하고 있는 미국에게 피카소의 세균은 불 위에 휘발유를 끼얹은 셈이다. 중공군의 참전과 함께 압록강을 경계로 미국이 원자폭탄을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사용해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던 당시의 국제여론의 향방에 세균전의 논란은 미국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떠올랐다. 미국은 피카소가 하지도 않은 세균전을 전쟁의 악마와 결합시켜 전쟁의 원흉을 미국으로 몰고 간다고 피카소를 비난했다. 한 예로, 1953년 5월 로마에서의 피카소 회고전에 처음으로 공개된 <전쟁>을 보고, 「타임」지는 작품에 나타난 “evil lobster-sized germs”를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쯤으로 비하했고, 「뉴욕 타임즈 매거진」은 <전쟁>을 “공산주의자가 반미국적 정치선전의 도구로서 세균전을 들먹였다”는 반응을 보였다.¹¹⁾

초현실주의를 겪은 피카소의 작품에 형태상으로 세균의 이미지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습작 드로잉과 미국의 세균전에 관한 당시의 논란을 미루어볼 때 피카소가 미국을 겨냥하여 세균을 그린 것은 확실하다.¹²⁾ 그러나, 만약 소련이 세균전을 해 그 논란이 있어도 피카소는 <전쟁>에 세균을 그렸을 것이다. 킨(Kirsten Keen)과 유틀리(Gertje Utley) 등의 미국 미술사학자들이 주장하듯, 피카소가 공산주의자여서 있지도 않은 세균전을 퍼뜨리는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정치선전에 피카소가 동조하거나 놀아났다고 필자는 보지 않는다. 피카소가 주목한 것은 전쟁과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세균의 관계이지, 피카소가 어느 한 국가를 이념적으로 싫어해 그 속마음을 이미지로 지목할 만큼 아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킨과 유틀리는 오히려 냉전의 정치적 논리에 미술사를 접목시켜 세균전의 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피카소를 폄하했다.¹³⁾

피카소는 <전쟁>을 위한 첫 습작 드로잉(도, 9)에서부터 미국의 세균전을 생각한 것 같다. 드로잉의 왼편은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의 평화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싸우는 평화의 사도가 있고, 오른편에는 피카소가 좋아하는 올빼미의 모습과 날개가 달린 독수리의 형상을 반반씩 섞은 전쟁의 악마가 바가지로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킨과 유틀리는 이 ‘죽음의 씨앗’이 세균을, 전쟁의 악마인 독수리 형상이 미국의 상징인 흰 머리 독수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11) “Murals from the Party,” *Time*, 6월 1일, 1953, p. 72. Aline Louchheim, “Propaganda and Picasso,” *New York Times Magazine*, 5월 17일, 1953, p. 14: “‘War’ seems political propaganda for within the Communist lexicon the reference to germ warfare is overtly anti-American...”

12) 이러한 판단을 처음으로 제공한 미술사 논문은 Kirsten Hoving Keen, “Picasso’s communist interlude: the murals of ‘War’ and ‘Peace,’” *Burlington Magazine*, v. 122, 1980년 7월호, pp. 464-470이다. Keen이 주장하는 논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것이 최근 Utley의 저서이다.

13) 구체적인 폄하의 목소리는 없으나 두 학자 모두 미술에 반영된 피카소의 정치적 성향, 또는 예술의 순수성이란 측면에서 정치와 예술은 결별되어야 한다는 태도로서 이 시기의 피카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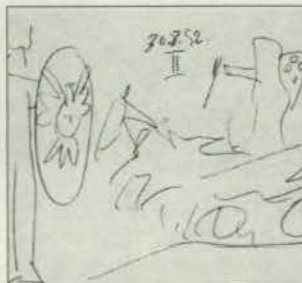
도판 10) 피카소, <벨로야니스의 사형>, 1952



도판 11) 벨로야니스, 「르가르」(Regards), (No.343, 1952, 3,14)



도판 12) 피카소, <카네이션을 든 남자>, 1952



도판 13) 피카소, <전쟁과 평화>를 위한 습작 드로잉, 1952, 8, 30

피카소가 '죽음의 씨앗'을 처음 생각한 것은 1952년 3월 31일 밤이었다. 그날 프랑스 공산당 신문인 「뤼마니떼(L'Humanité)」는 그리스 정부에 의하여 간첩죄로 그 전날 사형을 당한 벨로야니스(Nikos Beloyannis)(도. 10)의 소식을 크게 다루었다. 그의 처형을 미군이 집행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미국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그리스 정부를 조정했음을 암시한다. 그리스 공산당 간부이자 레지스탕스 전사였던 벨로야니스(도. 11)를 피카소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했다.¹⁴⁾ 그가 투옥된 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통한 구명운동에 마티스와 함께 서명도 했고 그의 초상화, <카네이션을 든 남자>(도. 12)를 그려 엠네스티에 기증하기도 했다. 그날 밤 피카소는 슬픔과 침묵으로 한 동안을 보내더니 르와(Claude Roy)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여 주었다: "5월 어느 저녁 랜턴 빛은 마드리드의 밤을 비추고, 탐욕스런 이방인에 의해 총살당한 고야 그림 속의 고귀한 민중의 얼굴은,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의 맨살 어깨 위에 한 주먹 뿌린 공포의 씨앗과도 같은 씨앗을 품고 있다.

거대한 흰 비둘기가 그의 죽음의 분노를 땅에 흩뿌린다."¹⁵⁾ 그리스 정부를 사주한 장본인이 미국이니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미국 혹은 전쟁을 향한 피카소의 분노, 즉 고야의 그림과 벨로야니스의 처형 그리고 세균전이 그의 뇌리에 시간차의 연상으로 오버랩 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첫 드로잉 이후에도 '죽음의 씨앗' 혹은 세균전을 암시하는 이미지의 드로잉을 여러 장 그렸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의 구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8월 30일의 드로잉(도. 13)에서 피카소는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독수리를 없애고 대신 인간에 가까운 형상이 말이 끄는 영구마차 위에 서있는 모습으로 바꿨고, 그것이 최종 작품에 반영되었다. 이 때의 상황을 짐작할 만한 피카소의 언급이 있다: "나는 <전쟁>의 주제를 먼저 시작했다.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마을의 길을 지나가는 초라하고 빼적거리는 영구마차의 덜컹거리는 행렬이었다. 나는 오른쪽부터 시작했고 이 이미지 둘레로 나머지를 구성했다."¹⁶⁾ 영구마차의 이미지는 <전쟁>에 관한 피카소의 마지막 아이디어를 풀어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과거의 이미지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또한,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독수리의 형상이 미국의 세균전을 직설적으로 빗댄 것으로 오해할 소지의 부담감을 피카소는 갖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에 나타나는 세균 또는 곤충(도. 14)들의 모습은 피카소의 습작 드로잉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킨은 피카소가 영감을 받았을 모티프로 1952년 4월 1일자 「뤼마니떼」에 실린 이 혹은 벼룩의 사진(도. 15)을 들었다.¹⁷⁾ 유틸리는 같은 모티프로 4월 4일 발행된 「르가르

14) 이 사진은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이 발행하는 잡지 「르가르(Regards)」의 1952년 3월호에 실린 것이다. 피카소가 이 사진을 모델로 벨로야니스의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Utley, p. 179를 참조.

15) Forestier, p. 16.

16) Ibid., p. 13.

17) Keen, p. 466, fig. 8.



도판 14) 피카소, <전쟁>, 1962, 470x1020cm, 빌로라스 상당



도판 15) 세균전 관련 기사, '뤼마니테(L'Humanite)', (1952, 4, 1)

만평(도. 17)이나 1952년 2월 강원도 철원에 투하된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의 마이크로 필름 사진(도. 18) 등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세균전을 입증하기 위한 많은 시각 자료를 서방세계에 퍼뜨렸다. 이러한 자료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카소는 분명 세균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의 <전쟁>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한편, 반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비둘기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있는 평화의 전사는 공산주의의 평화를 신봉

(Regards)」의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의 사진(도. 16)을 제시했다.¹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피카소가「르가르」에 실린 벨로야니스의 사진을 토대로 그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상기하면, 또한 「르가르」의 사진에 나타난 곤충들이 <전쟁>에 등장하는 곤충들과 더욱 유사하니 유틀리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 유틀리에 의하면 피카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미국의 세균전에 관한 공산 측의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고, 세균전을 “인류의 정의와 세계 평화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선동적인 발언도 했다.¹⁹⁾

1952년 4월 16일자 「인민일보」에 실린 중국 측의



도판 16) 세균에 감염된 곤충들의 사진, 「르가르(Regards)」(No.346, 1952, 4, 4)



도판 17) <죽음을 몰고 오는 미군>, 「인민일보」, 1952, 4, 16



도판 18)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의 마이크로 필름 사진

하는 전사다. 한국전쟁 기간동안 평화를 대변하는 공산주의의 엠블렘(emblem) 역할을 톡톡히 한 이 비둘기를 미국이 예쁘게 볼 리가 없다. 가령,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는 휴전협정 막바지 판문점에도 등장했다.²⁰⁾ 북한이 협정조인 사무실로 지은 새 막사 입구에 윤곽선으로 처리된 푸른색과 하얀색의 거대한 비둘기를 장식했다. 미국의 항의로 철거되었지만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는 그것을 잃거나 사용되는 시각 이미지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평화와 피카소의 존재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피카소의 비둘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곳은 유럽이었지만 공산당과 관련한 집회나 단체는 평화를 상징하거나 선전하는 시각적 도상으로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한국전쟁을 반대했던 도쿄의 일본 공산당 본부 건물 위에도, 1952년 여름 세균전의 실상을 조사한 국제과학위원회가 진상 보고서를 중국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북경의 회의실(도. 19) 벽에도 피카소의 비둘기는 여지없이 등장했다. 심지어 한국전쟁 중 1951년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힌 영국군 장교 파라호커리(Anthony Farrar-Hockley)는 그가 감금된 포

18) Utley, p. 167, fig. 141.

19) Ibid., p. 166.

20) John Toland,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p. 575.



도판 19) 북경의 회의실 사진



도판 20) 피카소, 〈평화〉, 1952, 470X1020cm, 발로리스



도판 21) 피카소, 〈생의 환희〉, 1946, 120X250cm, 앙티브

로수용소의 꽃밭을 돌맹이를 사용하여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고 ‘평화’라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강요받았다.²¹⁾

2) 〈평화〉

피카소의 〈평화〉(도. 20)는 그가 1946년 앙티브(Antibes)에서 제작한 〈생의 환희〉(도. 21)의 후속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생의 환희〉가 좀더 지중해적, 고전적 도상들을 많이 품고 있다면, 〈평화〉에는 페가수스(Pegasus) 이외에 딱히 꼬집어 말할만한 아르카디아(arcadia)의 느낌이나 신화적 도상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생의 환희〉에서는 흘날리는 머리 카락과 거대한 젖가슴의 질로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행복의 평화였다면, 〈평화〉에서는 작가와 질로 사이의 두 아이인 클로드(Claude)와 팔로마(Paloma)로 대변되는 어린이의 세계와 그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보다 인

류애적이며 이상적인 평화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구성하는 도상들의 원천 중 과거의 작품들과 다른 하나는 분명히 클로드나 팔로마의 놀이, 표정, 관심 등에 대한 주의



도판 22) 피카소, 습작 드로잉, 1952

깊은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새장에 갇힌 물고기’와 ‘어항에 들어있는 새들’의 아이디어는 1952년 9월 9일의 습작 드로잉(도. 22)에 이미 나타나 있다. 또한 그 둘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곡예를 부리는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가 앉아 있다든지, 달팽이 위에 피리 부는 소년이 앉아 있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유아적 유희의 창조본능을 자극하는 동화 속의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즉, 올빼미와 관련한 그리스의 아테나(Athena) 여신, 목양신(Pan)을 연상시키는 피리 부는 소년, 페가수스를 물고 발을 경작하는 아이, 디오니소스(Dionysos)적인 여인네들의 춤 등 전형적인 아르카디아느낌의 평화를 보다 원시적이고 순진무구한 유아적 평화의 세계로 전치시켰다.

반면에, 〈평화〉의 오른 편에 위치한 도상들은 매우 현실적이다. 오렌지와 포도의 지중해 과일 아래 아기에게 젖을 물린 여인은 책을 읽고 있으며, 그 옆의 소년은 술을 걸고 열심히 불을 지펴 음식을 장만하려 한다. 그 앞의 남자는 왼 팔로 턱을 고인 채 무언가 골똘히 쓰거나 그리는 것 같다. 결실을 기다리는 농작물이 파괴되고 전쟁의 말발굽 아래 책이 짓밟히고 불타는 〈전쟁〉의 도상학적 요소들은 〈평화〉의 같은 요소들과 극명하게 대치되어 있다. 〈전쟁〉과 〈평화〉가 하나의 쌍으로 존재하듯, 전쟁과 평화 모두 다 같은 현실로서 인간의 삶과 문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의 순간임을 피카소는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좀더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피카소가 르와(Claude

21) Anthony Farrar-Hockley, *The Edge of the Sword*(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김영일 옮김, 서울: 한국언론인협회, 2003, p. 329.



도판 23) 피카소, <전쟁> 이후의 습작 드로잉, 1953



도판 24) 피카소, <평화> 이후의 습작 드로잉, 1953

Roy)에게 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다: “이 세계에 평화가 온다면 내가 그린 전쟁은 과거의 사건일 것이다.....단, 흐른 피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멋진 드로잉 이전의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고, 훗날 사람들이 그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긁어 한 방울의 피가 형성된다면 이 작품은 정말로 살아 숨쉬는 그림임을 보여주는 것일 게다.”²²⁾

킨은 <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의 반미국적 태도를 반영한 것과 같이 <평화>도 그들의 유토피아적 평화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 그 근거로 킨은 피카소를 포함한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의 반미국적 경향을 주목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지식인들의 이념적 성향은 좌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거기에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작가란 무엇을 하든 “연루(dans le coup)” 되어 있고, “(자기의) 시대를 껴안아야” 한다는 주장의 “앙가주망(사회정치 참여)의 시대(ere de l'engagement)”는 지식인들의 참여를 우파보다는 좌파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⁴⁾ 사르트르 자신이 1952년에서 1956년 사이에 일종의 동반자가 되는 정도로까지 프랑스 공산당과 가까웠으며, 1944년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한 이후의 피카소의 많은 참여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

시 프랑스 공산당은 프랑스 지식인들의 정당임을 표방할 정도로 그 기세가 당당했으며, 특히 문화에 대한 그들의 또는 프랑스의 자존심이 미국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훼손당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다. 한 예로, 이러한 반미국적 정서의 선전에 앞장선 코니오(Georges Cogniot)는 할리우드(Hollywood)의 영화가 프랑스인을 싸구려 연예인 정도의 예술가로 취급한다며,²⁵⁾ 오히려 할리우드식의 대중문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유럽 사회에 파고드는 것을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적 침탈로 간주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킨은 <평화>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책을 읽는 여인과 무언가를 열심히 쓰거나 그리는 남자의 도상은 유럽의 전통적인 지성과 문화를 상징하며, 전쟁과 함께 그것을 파괴하는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를 피카소가 표현했다는 주장이다. 킨의 관점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으나, 전시의 상황에서 평화란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다. 그런 평화에 공산주의자의 평화 혹은 자유주의자의 평화가 따로 존재한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사, 그런 식의 평화가 존재하든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어떤 평화라도 무방하다. 피카소의 <평화>도 이러한 것이다. 굳이 지식과 관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보편적 정서로서 인류의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그런 평화를 피카소는 그렸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피카소의 추억과 미련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두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한 후에도 드로잉치고는 꽤 큰 사이즈로 온전하게 전체의 구성이 드러나는 습작의 <전쟁>(도. 23)과 <평화>(도. 24)를 그렸다.²⁶⁾ 이 두 드로잉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그 해 12월에 제작되었다. 그래서인지 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전쟁>에 등장하는 평화의 전사는 유화와 비교하여 신체의 사이즈가 커졌고, 그 숫자도 늘어났다. 유화와 비교하여 <평화>는 더욱 축제적이다. 태양이 있던 자리엔 승리를 자축하듯 ‘평화의 비둘기’가 밝고 힘차게 날고 있고, 화면 전체에 꿈틀거리는 선묘(線描)의 기세가 역동적이며 발랄하다.

22) Utley, p. 176에서 재인용.

23) Keen, pp. 468-470.

24) 정명환 외 3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서울: 민음사, 2004, pp.64-71.

25) David Caute, Communism and the French Intellectuals, 1914-1960, London: Andre Deutsch, 1964, p. 193.

26) Utley, p. 175를 참조할 것.



도판 25) 피카소, 〈전쟁과 평화〉, 1959

세월이 한참 지난 1959년에 그린 드로잉, 〈전쟁과 평화〉(도. 25)에도 한국전쟁 중 그가 가졌던 전쟁과 평화의 잔상들이 아직 남아있다. 특히, 양 손에 칼을 들고 입에서 불을 내뿜는 전쟁의 괴물은 마치 이나 벼룩을 변형시킨 형태 같아 세균전에 대한 피카소의 울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유화의 두 판넬 작품은 원래의 계획대로 1954년 2월 발로리의 성당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후 5년 동안 성당은 폐쇄되어 피카소의 두 작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성당이 폐쇄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드골 정권이 들어선 후, 1959년 11월 19일, 〈전쟁〉과 〈평화〉가 있는 발로리의 성당, '평화의 신전'은 공식적인 프랑스 국립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그 개막식을 가졌다.

3. 세균전 논쟁

한국전쟁 중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항의 전신을 북한 외무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처음 통보한 것은 1951년 5월 8일 이었다.²⁷⁾ 그러나 이 전신은 안보리의 주목을 끌만큼 항의의 주장이 강하지 못했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1952년 2월 22일,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북한 외무상 박헌영은 미국이 북한 지역에 세균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유엔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어서 같은 미국의 만행이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중국은 외무상 저우언라이의 이름으

로 3월 8일 고발했다.²⁸⁾ 뒤이어 소련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세균전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1952년 초반부터 1953년 까지 전 세계를 들끓게 했다.²⁹⁾ 미국은 특히 소련의 공세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한국전쟁의 참전

과 함께 가혹이나 나빠진 자국의 평판이 국제여론에서 더욱 나빠질 것을 매우 걱정했다. 당시, 타임지에 실린 카툰(도. 26)은 세균전이 소련의 구태의연한 거짓의 정치선전으로 세계를 감염시키려한다는 풍자를 담고 있지만, 미국이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얼마마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³⁰⁾

세균전의 비난이 심해지자 미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적 십자사와 세계보건기구가 세균전의 진상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북한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³¹⁾ 당시, 북한과 중국에 들어가 세균전의 실상을 파악한 두 국제단체—국제민주번호사협회(CIADL)와 국제과학위원



도판 26) "Some Old Propaganda Buy", 타임지, 1952, 4, 7

27) The Problem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v. 4(6 vol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71, p. 196. 이하 PCBW로 약칭함. 한국전쟁 중의 미국의 세균전을 다룬 저서로서 1970년대 까지 발행된 것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연구서임.

28) PCBW, v. 1, p. 239.

29) 1952년 4월 7일자 타임지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In Italy, in France, in Belgium, Holland and West Germany there were Communist protest parades. And in Teheran last week Communists youths, shouting "Germ warfare," touched off a riot of 10,000: it left twelve dead and 250 injured." Time, 4월 7일, 1952, p. 30.

30) Ibid.

31) 북한과 중국의 반대 이유로 ICRC는 미국의 입김이 강력해 객관적인 대 표성을 가질 자격이 없는 기구이고, WHO는 유엔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32) PCBW, v. 1, pp. 241-258.

회(ISC)가 있었다. 국제민주변호사협회는 1952년 3월에, 국제과학위원회는 6~8월까지 각각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북경에서 발표했다.³²⁾ 두 기구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은 이들의 결론을 당연히 부정했다.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권위있는 생화학 교수인 니드햄(Joseph Needham)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과학위원회의 조사단은 무려 600여장에 달하는 진상보고서를 북경에서 중국평화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국제민주변호사협회가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정교했다.³³⁾ 이 보고서를 검토한 자유진영 측의 과학자들은 세균전이 "아마도 소련에 의하여 심어진" 것이고, 그 증거들은 "사기"라고 판단했다.³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나서 세균전 논쟁은 국제 사회에서 서서히 그 매력을 잃어갔다. 세균전과 관련한 서방측의 학자들은 그 진상의 '조작'을 다시 확인하는 저서들을 가끔씩 남겼고, 공산권의 학자들에게도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거의 잊혀진 '주제'가 되어버렸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의 세균전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³⁵⁾ 미국과의 관계와 냉전의 정치적 현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최근 MBC TV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일급비밀-미국의 세균전"을 방영하면서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알렸다.³⁶⁾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세균전의 가능성을 밝힌 엔디콧(Stephen Endicott)과 해거먼(Edward Hageman)의 최근 저서를 토대로 제작했다.³⁷⁾ 엔디콧과 해거먼은 북한을 제외한 서방측과 과거 공산권의 국가들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의 구술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기밀해제 문서들과 처음으로 중국 측의 자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디콧과 해거먼은 미국이 한국전쟁 중 세균전을 감행했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들은 세균전의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가능성을 서방측의 자료를 통해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측의 기록이나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1943년부터 매릴랜드 주에 생화학전 연구소인 '디트릭 기지(Camp Detrick)'를 운영했다. 일본의 패망 후, 1947년 미국은 일본의 731부대장인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생물학전의 원흉들을 전범에서 풀어주고, 대신 그들의 생물학전 연구업적을 물려받았다. 이 거래의 기밀은 1980년 파월(John Powell)에 의하여 문서상의 증거로 발각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³⁸⁾ 미국방부는 1950 회계연도에 5백30만 달러였던 생물학전 개발자금 지원금을 1951~1953년 3억 4천5백만 달러로 늘렸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자료보다도 엔디콧과 해거먼이 주목한 결정적인 단서는 세균폭탄이다. 세균전이란 치명적인 세균을 연구하고 대량으로 배양해 그것을 적지에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을 위해 미 공군이 전단폭탄(도, 27)을 세균폭탄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엔디콧과 해거먼은 미 공군의 폭격 패턴을 조사했다.⁴⁰⁾ B-26 또는 F-84가 엄청난 폭격을 목표에 따라 퍼붓고, 그 뒤를 이어 후미의 B-26 두 대가 지연폭탄을 투하하

33) PCBW, v. 4, pp. 198-200.

34) F. G. Gregory, "Germ Warfare" [letter to the editor], *New Statesman and Nation*, 12월 5일, 1953, PCBW, v. 1, p. 25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의견으로 T. Rosebury, "Some Historical Consideration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16(6), 1960, pp. 227-236을 참조.

35) 세균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1980년대 들어와 다음과 같은 저서에서 볼 수 있다: 김주환 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서울: 청사, 1989. 국민방첩연구소 편역, *세균모략전*, 서울: 갑자문화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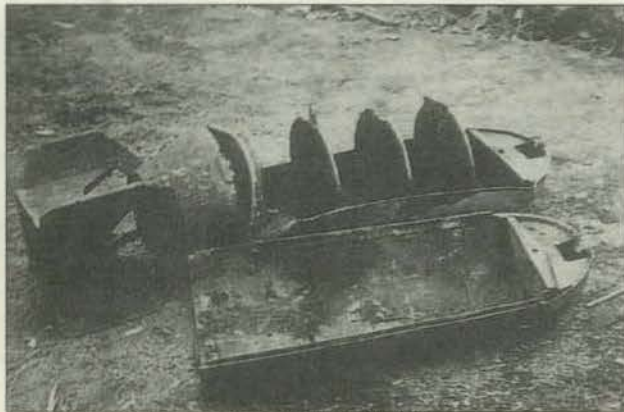
36) 이 프로그램은 2000년 7월 2일 방영되었다. 미술사학회에서도 피카소의 <전쟁>과 관련한 세균전의 논의를 몇몇 학자들이 언급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 논문이 처음이다.

37)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안치용, 박성휴 옮김, 서울: 중심, 2003. 이하 USBW로 축약함.

38) USBW, pp. 73-78.

39) Ibid., pp. 86-87.

40) Ibid., pp. 264-270.



도판 27) M16 전단 폭탄과 유사한 M105 폭탄

고 마지막 한 대는 공격 말미로 2발의 전단폭탄을 떨어뜨린다. 일명 '불발탄'으로 불리는 전단폭탄은 "미 공군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군사목표 인접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사상(死傷)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해 투하한다."⁴¹⁾ 진정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폭격 전에 전단폭탄을 먼저 투하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매개 곤충이나 감염된 깃털 등이 들어있으므로 그것들이 다른 폭격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투하한다는 것이 엔디콧과 해거먼의 주장이다.

1951년 4월 한국의 격전지에서 처음으로 유행성출혈열이란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 병은 1년 뒤인 1952년 5~6월에 다시 미군들 사이에도 크게 번졌다. 주로 38도선 상의 주요 전선에서 발생한 이 병의 원인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전쟁 중 북한과 만주, 심지어 남한 지역에도 간헐적인 전염병들이 출현했지만 유행성출혈열은 한반도의 역사에 없는 질병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731부대가 이 병원체를 실험했고, 실제로 만주의 특정 지역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살포한 경험이 있었다. 미국은 본토의 디트릭 기지이외에도 일본의 극동의무사령부 예하 406부대와 8003부대에서 대규모의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고, 출혈열도 그 중의 하나였다. 731부대의 카사하로 시로가 이 연구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엔디콧과 해거먼은 밝혀냈다.⁴²⁾ 미 군의관들은 이 전염병의 치료에는 성공했으나, 병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매개체와 병원체를 분리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가장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했으나 실험 결과 그 연관성을 확증하지 못했다.

유행성출혈열은 원인 불명의 일종의 에볼라류의 괴질로서 한국전쟁 후에도 휴전선 일대의 군인들 사이에 많이 발병했다.⁴³⁾ 그런데 197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호왕 박사가 이 질병의 병원체를 발견하여 '한탄바이러스(Hantanvirus)'라 명명했고, 1990년에 이 병의 예방백신인 '한타박스'를 개발하여 시판할 수 있게 했다. 지금도 치사율이 높은 이 질병은 들과 산에 야생하는 줄무늬 쥐(등줄 쥐)의 배설물이 건조되어 그 바이러스가 먼지 등과 함께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주로 늦봄과 늦가을에 발병한다. 공교롭게도 이 호왕 박사는 1968년부터 이 연구를 위해 미육군성 연구개발부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자체로는 노벨상 감이나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서만 발병되어 그 성과의 국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⁴⁴⁾ 이호왕 박사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탄강 유역의 동두천에서 잡은 들쥐로 실험을 했기에 '한탄바이러스'로 명명했다고 한다.

4. 결론

한국전쟁은 실제로 군사를 투입하여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의 입장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한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내전(civil war)이었다.

41) Ibid., p. 266.

42) Ibid., p. 226-229.

43) 1975~1978년 사이에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한 필자의 기억 중에, 아무데나 퍼질러서 앉거나 졸면 이 병에 걸린다는 인사계의 지침이 있었고, 취프리 열개를 모으면 일주일 포상휴가를 보내준다고 모두들 쥐를 잡는다고 실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 어떤 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기차처럼 무더기로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 쥐가 바로 이 질병의 숙주인 줄무늬 쥐(등줄 쥐)였다.

44) 물론, 한탄 바이러스는 유행성출혈열의 원형이기에 새로운 바이러스의 속(genus)으로 국제학계에 공인, 수록되었다. http://hall.scienceall.com/presenter/ieehowang/howang_main01.html을 참조할 것.

중국은 북한과의 동지(comrade)적 관계로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그들의 군대를 항미원조 인민지원군이라 불렀다. 미국은 달랐다. 투르먼(Harry Truman) 대통령은 자국 의회의 동의 없이 UN의 결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선전포고 없이 '경찰 활동(police action)'이란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했다.⁴⁵⁾ 미국은 1950년 6월 25일~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의 승인을 요청했고, 소련의 불참 아래 통과된 안에 따라 미국은 유엔군을 한국에 끌어 들여, 전쟁이 아닌 경찰 활동을 벌인 것이다. 그럼으로, 형식적이긴 하나 법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은 한국에서의 내전을 평정하기 위한 국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된다.

'경찰 활동' 중 만약에 미국이 세균전을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도덕적 위상은 국제적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행의 국제법상 전쟁 중 어느 국가든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것을 어기면 전범으로서의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 윤리적 실추로 인한 국가의 손해가 막심하다. 전쟁 중 유독 가스와 세균의 사용을 금지한 '제네바 협정(Geneva Protocol)'에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다.⁴⁶⁾ 만약, 미국이 북한과 만주에서 세균전을 수행했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진다면 하더라도, 미국은 당시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최후의 발뻠을 지금

도 할 것이다.

결정적인 심증은 있으되 확증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9.11 테러 이후 세균전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은 다시 증폭되었다. 앞서 언급한 세균전의 진상과 함께 미국이 만약에 한국전쟁 중 세균전을 감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들이 그 개연성을 높였을 것이다:

1. 세균전은 은폐하기가 용이하다.
2. 세균전의 개발이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3. 도덕과 윤리에 앞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4. 한국과 중국을 인종적으로 멸시했다.
5. 미국은 남북전쟁 후 자국에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본 논문은 세균전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정치학이나 군사학의 논문이 아닌 미술사학의 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전에 관한 사안을 많이 다루었다. 피카소의 <전쟁>과 <평화>에 얽힌 세균전의 논쟁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세균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중, 미국의 세균전 수행 여부에 관한 역사적 논의들은 마치 요즈음 TV에서 방영하는 '진실 혹은 거짓' 같은, 픽션과 논픽션을 교묘히 배합한 오락 프로그램과 다를 것이 없다. 진실을 교묘히 위장하여 거짓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 반대로 거짓을 그럴듯하게 꾸며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세균전의 의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 이해타산에 따라 미국 측은 하지 않은 세균전을 북한과 중국이 한 것처럼 꾸며, 즉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소련 측은 세균전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보태, 즉 진실을 거짓인 것처럼 다룬다고 서로를 비난했고 지금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그 태도는 여전하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에 얽힌 피카소 자신의 태도는 진실인가 혹은 거짓인가?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건 혹

45) John Toland,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p. 8.

46) 일본 역시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생물학전에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비준한 해는 1972년이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국제 과학자들은 미국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pp. 299-300.

47) 인터넷의 한 예(<http://www.khan.co.kr/news/2000/10/06/200010061523261.html>)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는 9명의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발생했고, 화성군 매항리 사격장 집회 통제에 투입된 전경 중 46명이 집단감염 되어 1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최근에 와서도 줄어들지 않는 한 원인이 있다. 남성의 정력과 보양식으로 들쥐의 천적인 뱀을 마구잡이로 잡아먹어 좀처럼 뱀을 볼 수 없으니 유행성출혈열의 숙주인 줄무늬쥐(등줄쥐)가 전국적으로 번창하기 때문이다.

은 하지 않았건 간에 적어도 1951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유행성출혈열'이라는 제2종 법정 급성전염병이 출현했으며, 지금도 치사율이 5~7%인 이 전염병에 걸려 해마다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다.⁴⁷⁾ 영구 마차를 타고 죽음의 세균을 뿌리는 피카소의 전범이 미국이든 아니면 그것이 공산주의를 위한 선전이든, 이 땅에는 전쟁이 뿌려놓은 세균의 씨앗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으로 피카소의 진실은 입증된 셈이다. 피카소에 있어서 "진실은 예술이고, 거짓은 예술의 죽음"이라 한 피에르 데(Pierre Daix)의 말처럼,⁴⁸⁾ 거짓은 피카소의 미술을 죽이려 하거나, 왜곡하려 한 이 데올로기의 정치이다.

주제어(key words):

피카소(Picasso), <전쟁>(La Guerre), <평화>(La Paix), 한국전쟁(Korean War), 세균전(biological warfare), 유행성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

참고문헌

- Musee Picasso: Catalogue of the Collections, I, II*,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 Penrose, Roland, *Picasso, His Life and Work*,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Utley, Gertje R., *Picasso, The Communist Year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Villers, André, *Picasso à Vallauris*, Golfe-Juan: Ville de Vallauris, Z'Éditions, 1987.
- Forestier, Sylvie, *Pablo Picasso, la Guerre et la Paix*,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95.
- Roy, Claude, *Picasso: la Guerre et la paix*, Paris: Cercle d'Art, 1954.
- _____, "Picasso: War and Peace," *Graphis*, v. 10, January 1954, pp. 86-99.
- Blunt, Anthony, "Picasso in Rome and at Lyons," *Burlington Magazine*, v. 95, October 1953, pp. 331-332.
- Keen, Kirsten Hoving, "Picasso's communist interlude: the murals of 'War' and 'Peace'," *Burlington Magazine*, v. 122, July 1980, pp. 464-470.
- Barry, Joseph, "The Two Picassos: Politician and Painter," *New York Times Magazine*, May 6, 1951, pp. 17, 33, 35 and 38.
- Boggs, Jean, "Picasso and Communism," *Artscanada*, v. 236-7, September-October, 1980, pp. 31-36.
- Daix, Pierre, "For Picasso, Truth was Art; and Falsity, the Death of Art," *Art News*, v. 72, Summer 1973, pp. 47-49.
- Louchheim, Aline, "Propaganda and Picasso,"

48) Pierre Daix, "For Picasso, Truth was Art; and Falsity, the Death of Art," *Art News*, v. 72, 여름호, 1973, p. 47.

New York Times Magazine, May 17, 1953, p. 14.
"Murals from the Party," *Time*, June 1, 1953, pp. 72-73.

"Foreign News: Russia, Germs of Untruth," *Time*, April 7, 1952, p. 30.

Havemann, Ernest, "War and Politics," *Life*, August 28, 1950, pp. 100-110.

"The Savage, Secret War in Korea," *Life*, December 1, 1952, pp. 25-33.

Caute, David, *Communism and the French Intellectuals, 1914-1960*, London: Andre Deutsch, 1964.

The Problem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6 vol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71.

Rose, Steven, ed.,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Boston: Beacon Press, 1969.

Toland, John,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Chung, Moojeong, "Abstract Expressionism, Art Informel, and Modern Korean Art, 1945-1965," Ph. 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0.

Endicott, Stephen and Hagerman, Edward,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안치용, 박성휴 옮김,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Farrar-Hockley, Anthony, *The Edge of the Sword*(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김영일 옮김, 서울: 한국언론인협회, 2003.

정명환 외 3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서울: 민음사, 2004.

정영목, "피카소와 한국전쟁, 〈韓國에서의 虐殺〉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8집, 1996, pp.

241-258.

_____, "미술과 정치: 피카소의 한국전쟁 관련 작품과 한국, 일본의 추상미술, 1950-1960," *조형*, 24호, part 1(연구논문집), pp. 1-11.

한진, "피카소와 마티스, 한국전쟁과 반전운동," *미술세계*, 6월호, 2002, pp. 28-33.

유행성출혈열 관련 사이트:

http://hall.scienceall.com/presenter/leehowang/howang_main01.html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일급비밀, 미국의 세균전," 2000년 7월 2일 방영.